

진도 구기자 가공제품 3종 ‘인기몰이’

액상스틱·농축 병·구증구포 등 편하게 음용

면역성·간 보호 등 효과...다양한 음식 활용

진도 구기자를 소비자들이 쉽고 오래 두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액상스틱, 농축 병, 구증구포’ 등 3종의 가공제품으로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수오, 인삼과 더불어 3대 명약으로 일컬어지는 구기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간세포 재생과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문은 끊이 질 않는다.

특히 진도군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해양성 기후와 일조시간이 가장 긴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나 영양 면에서 우수한 구기자가 생산된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다양한 기록물에 남아 있을 만큼 역사가 깊고 효능과 품질이 뛰어나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기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방 약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진도 구기자는 손으로만 짜도 끈끈한 진액이 가득 나오며, 끈끈함이 있어 잘 말린 구기자를 손으로 짤 땀이 퍼면 그대로 덩어리로 굳어 타 지역 구기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색이 선명하고 진액이 많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인 진도산 구기자는 지난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전국 생산량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발한 연구를 통해 진보 1호와 진보 2호의 신품종 등록을 완료하는 등 구기자 품종 개량과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신품종은 기존재래종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고 당도가 높으며, 수확량도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진도 구기자는 몸에 좋은 성분인 베타인, 제아잔틴, 루틴, 다양한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맥 강화와 고혈압과 빈혈·시력 감퇴 예방, 간 보호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우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군에서는 현재 300여 농가가 42ha에서 연간 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닭백숙을 만들 때 각종 한약재와 함께

넣고 삶아주면 진도 구기자 건강 보양식이 완성된다.

또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불고기, 구기자밥, 구기자차 등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수한 효능의 진도 구기자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판매하는 ‘진도 구기자 365’ 제품은 진도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구기자는 간 손상을 막아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왕성해져 허약체질에 좋고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면역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 미래 향한 힘찬 발걸음 전략사업 등 행정력 집중”

2022 새해설계

김종식 목포시장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문화예술 등 그동안 주력해온 사업들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올해 시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목포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이다”며 “목포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임인년의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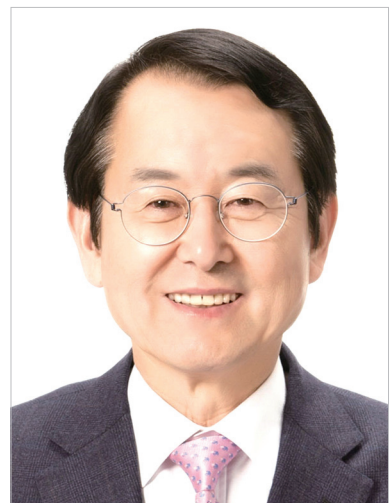
특히 목포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를 착공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선박은 정부사업에 반영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초 우리나라 제1호 전기선박을 진수한다.

수산식품 분야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수산식품 생산 기업 유치 등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김과 어묵의 고품질화,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는 인프라 확충, 차별화된 콘텐츠, 효과적인 마케팅 등이 주요 전략으로 목포해상W소를 새로운 야간관광상품으로 본격화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옛 목포세관창고를 목포 맛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갑자육모자점과 옛 호남은행을 각각 세계모자박물관과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개관한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관



광브랜드 디자인 개발, K팝 스타와 글로벌 채널을 연계한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도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인재 양성, 문화다방 등 브랜드 개발, 문화파시 플랫폼 등을 통해 문화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를 위해 갯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해 삼학도에는 800석 규모의 컨벤션과 5성급 호텔을 유치할 예정이다.

목포 발전을 위한 대형 현안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유입 시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시대적 변화 대응에도 총력을 쏟는다.

섬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섬 연구기관 유치, 섬 테마공원 조성 등 세계적인 섬 클러스터 구축에 노력한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군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의 행동을 실천하다 2010년 3월 입직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도서관이 임시 개관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임시개관

해남군은 최근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의 행동을 실천하다 2010년 3월 입직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도서관을 임시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스님 생가터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화장실, 법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조망대로 구성됐다.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반영해 건축됐으며, 유언대로 유물을 최소화하여 법정스님 사적 14책, 법정스님 초상 1점, 법정스님 사진 2점 등이 전시돼 있다.

관광객들에게 법정스님의 사상과 전시

품 설명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해남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협의회 추진위원인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고현 본부장, 미황사 금강스님의 고증과 자문을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법정스님 생가터에 방문해 무소유를 되새기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돼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최근 개장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스카이워크와 연계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호 기자



신안군은 지역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을 활용해 3년간의 육성과정을 거쳐 최근 산림 신품종인 ‘신안천사굴참나무’ 개발에 성공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천사굴참나무 개발 성공

600여주 개체 증식...섬 가꾸기 탄력 기대

신안군이 최근 산림 신품종인 ‘신안천사굴참나무’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계절 꽃 피는 섬 가꾸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을 활용해 3년간의 육성과정을 거쳐 신품종 개발에 성공, ‘신안천사굴참나무’로 이름 짓고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등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신안군은 자은면 백산리 1004묘지엄파크 내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숲 가꾸기작업을 시행하던 중 햇빛에 은색으로 빛나는 잎을 가진 희귀한 변이종 굴참나무를 발견했다.

은빛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반한 업무 담당자가 그동안 이식하고 관리하면서 육성작업을 실시해 현재 600여주의 개체 증식에 성공했다.

신안군은 변이종 굴참나무의 상품화를 위해 광주교대의 신품종 확인 용역을 거친 결과 품종의 차별성과 안정화가 확인돼 신품종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무안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한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이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원 시술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체외수정의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

가 각 2회 증가했다.

기존에는 시술 차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는 시술 횟수에 관계없이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2022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진도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업무협약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체계적인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치료와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진단·감별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

기 발견해 증증화 등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치매 치료비, 조호 물품 지원,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치매통합사례관리 등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진삼치, 목포 만호동에 물품 나눔

목포시 만호동은 최근 관내 외식업체 진삼치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만호동행정복지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 100박스, 생수 30박스, 물화장지 30개를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안룡 대표는 “2022년을 맞아 이웃들이 호랑이처럼 기운찬 한 해를 보내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준비했다”고 밝

혔다. 기탁된 물품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저소득층 등 총 4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태만호동장은 “새해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김안룡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더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 활동 눈길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신장리 주민들과 압해동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결성한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이색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을 적극 활용해 철새탐조,

낙지잡기, 염전체험, 새우양식, 굴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교생 48명에 불과한 압해동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망 구축으로 갯벌과 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